

광주·전남 출신들 세계 오페라 무대 주역으로



스웨덴 예테보리 오페라극장이 제작한 '나비부인'에서 주역을 맡은 소프라노 윤정남과 미국·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인 베이스 바리톤 조형식, 베이스 심인성씨. (왼쪽부터)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은 1900년 대 일본 나가사키가 배경이다. 작품에는 인상적인 곡들이 많지만 특히 주인공인 나비부인 '초췌상'이 부르는 '어떤 개인 날'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아리아 중 하나다. 미국 해군 중위와 게이샤의 사랑을 그린 '나비부인'은 중국이 배경인 푸치니의 '투란도트'와 함께 동양 출신 오페라 가수들이 가장 경쟁력을 갖는 작품이기도 하다.

여수 출신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윤정남(35)씨가 '차세대 나비부인'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006년 뉴욕에서 '라 보엠'의 미미로 데뷔한 후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최근 광주·전남 출신 성악가들의 해외 활동이 눈부시다. 뉴욕을 비롯해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유명 오페라 무대에서 실력을 선보이는 중이다.

윤씨는 최근 스웨덴 예테보리 오페라극장이 제작한 '나비 부인'의 주역을 맡아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이 시대, 떠오르는 초췌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윤씨는 이 작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하반기 오슬로 노르웨이 국립극장의 '나비 부인'에도 주역으로 출연하며 현재 미국 메트로 폴리탄 극장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여수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미국 줄리아드 스쿨 오페라 센터를 졸업한 윤씨는 2011년 링컨센터에서 공연된 오페라 '잔니 스키키'의 '라우레타' 역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독일에서는 '투란도트'의 '루'와 '피가로의 결혼' 등에 출연했다.

소프라노 윤정남

스웨덴 예테보리 오페라 극장 '나비 부인' 주인공

베이스 바리톤 조형식

카네기 홀 공연 창작 오페라 '선비' 주역 맡아

베이스 심인성

비엔나 슈타츠 오페라 출신, 베로나 페스티벌 출연

테너 김지은

아우크스부르크 오페라극장 ... '투란도트' 등 200여 회 공연

지난해에는 연세대 무악오페라단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제작진이 함께 만든 '피가로의 결혼'에서 소프라노 흥해경과 백작 부인역에 더블 캐스팅 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무대에도 섰다.

시즌을 마치고 잠시 귀국한 윤씨는 "많은 오페라 가수들이 자기들의 장기가 되는 작품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는 아마도 그게 '나비부인'인 것 같다"며 "지금 세계 각국 오페라단에서 제안을 받고 있는 작품도 대부분 초췌상 역"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오페라 '라 보엠'의 미미 역도 참 좋아하는데 자칫 '나비부인' 초췌상으로 이미지가 한정될 수 있지만 자신만의 특기를 갖고 있는 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데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스 바리톤 조형식씨는 9월 카네기 홀에서 공연되는 창작 오페라 '선비'의 주역을 맡았다.

중장조와 조대부고를 졸업한 조씨는 중앙대 성악과를 수석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맨하탄 음대, 북아이스와 대학 등에서 수학했으며 '라 트라비아타', '피가로의 결혼', '잔니 스키키' 등 다양한 오페라에 출연했다.

오는 9월25일 카네기홀 대극장 아이작스틴홀에서 공연되는 '선비'는 조선오페라단이 제작한 작품으로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에서 '나비부인' 주역을 맡았던 메조소프라노 김학남이 예술감독 겸 주역을 맡았다.

'선비'는 유학과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안향과 소수서원을 건립하려는 선비들의 노력을 다루고 있다. 조씨는 이 작품에서 서원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재수 역을 맡았으며 바리톤 임성규씨가 주세봉 역으로 출연한다. 조선오페라단은 '선비'가 우리나라 오페라 역사 70년 사상 최초의 카네기홀 공연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Sardos Artists Management 소속으로 활동 중인 조씨는 뉴욕을 비롯해 유럽과 남미 무대에도 서고 있다. 또 오페라단 칼리오페와 뉴욕솔리스트 앙상블, 뮤지컬 극단 'MAT'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변 어린이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베이스 심인성의 활약도 눈에 띈다. 광주에 3년 때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1998년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공부와 연주 활동을 병행했다.

세계적인 오페라단인 비엔나 슈타츠 오페라에서 8년간 전속 성악가로 활동한 후 프리랜서로 전향한 그는 이탈리아 베로나 아레나 페스티벌과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캐플릿 공작 역, '아이다'의 이집트 왕 역 등으로 출연했다. 올해 오페라 가수들의 꿈의 무대 중 하나인 영국 코벤트 가든 무대 데뷔도 앞두고 있다.

전남대 출신으로 광주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했던 테너 김지은씨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오페라극장 전속 주역 가수로 활동 중이다. '투란도트' 칼라프 역으로 데뷔 후 유럽을 중심으로 200여회 오페라 무대에 선 김씨는 지난해 광주시립합창단과 협연하기도 했다.

그밖에 여수 출신 테너 김성현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함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수학했으며 엘리제 미디어 포쿠르 등에서 1위 입성했다. '람메르누이의 루치아', '라 트라비아타' 등에 주역으로 출연했으며 올해 함부르크 극장에 데뷔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본을 본다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박물관대학 250명 선착순 모집

매번 참신한 주제로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박물관대학이 가을에는 일본문화를 준비했다.

제25기 광주박물관대학이 '일본을 본다'를 주제로 10월5일부터 12월7일(매주 수요일 오후 2~4시)까지 열린다.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일본 고고학, 역사학을 살펴보는 10개 테마로 구성된다.

배기동 한양대 교수가 알려주는 '일본인의 기원'을 시작으로 ▲인나일본부설을 말한다(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 ▲일본의 정월건축(박경자 전통경관보존연구원장) ▲일본 속의 한국 불교문화(정영호 정국교원대 명예교수) ▲일본의 무사도 정신(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 ▲일본 도자기와 차문화(조용준 문화탐사 저널리스트) ▲일본을 강하게 만드는 문화코드(김정례 전남대 교수) ▲일본 전통 축제의 이

해(김희진 광주대 교수) ▲일본의 예술과 서양문화의 수용(정하미 한양대 교수) ▲일본과 한국 사료 속의 독도(유미립 한양문화연구소장) 등이다.

강의가 끝난 오후 4시10분부터는 관련 다큐멘터리·영화를 상영하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수강생은 250명 선착순 모집하며, 희망자는 9월6일까지 박물관 홈페이지(gwangju.museum.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강료는 신입회원 8만원, 기존회원 6만원이다.

지난 1982년 시작한 '광주박물관대학'은 지금까지 '러시아, 그 영혼을 깨우다', '서양미술에 말 걸다', '스페인, 참을 수 없는 유혹'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문의 062-570-7077, 704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본 무사도 '주신구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 '놀이터' 변신 문화재단, 14~16일 토요일 캠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이 놀이터로 변신한다.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청에서 토요일 캠프 '어린이놀이도시 2-시장이 놀이터?'를 연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 100명이 예술가와 함께 먹고 자면서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어린이놀이프로젝트다. 어린이와 예술가들은 짬뽕, 모래, 나무 등을 이용해 '비계구조물의 놀이터', 재활용품 '악기 놀이터', 빛과 어둠을 활용한 '빛·그림자 놀이터', '비닐놀이터', 목공을 이용한 '뚝딱소꿉' 등 9개 놀이터를 만든다. 박문중·신양호·이호동·김동준·정다운·배수민·신희홍·임웅·성현진·유대영 작가가 참여한다. '같이 모여 놀이터를 짓자'를 콘셉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결과물은 16일 오전 10시 놀이도시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공개된다. 캠프 참가 희망 어린이는 9~12일 전화접수를 하면 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62-670-5763~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화순도 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